

2023. 5. 30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3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

안전보건팀장

박 경 서

02-3706-1650

매수 : 3매

담 당 자

최 태 호

02-3706-1653

서울시, '내 손 안에 상담센터'...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온라인 비대면 심리상담실 운영

- 비노출 희망자 상담유도 및 개인고충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앱 기반 비대면 상담실 개설
- 7,500여명의 서울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지연·공백 방지를 위한 상담인력 65% 증원
- 심리상담, 병원치료 연계, 진료비 전액 지원 등 소방관 마음건강 집중관리체계 구축

-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“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온라인 앱(어플)을 활용한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1:1 비대면 심리상담실을 운영한다”라고 30일(화) 밝혔다.
-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 중인 ‘찾아가는 상담실’을 통한 상담자 수가 4년간 약 1만8천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.
 - ‘찾아가는 상담실’은 정신건강 심리상담사가 소방기관을 방문하여 마음건강 예방 교육을 하고, 상담이 필요한 직원에게 전문 대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.

- 지난해에는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5,947명이 ‘찾아가는 상담실’을 통해 상담을 받았고 상담수요가 2021년 대비 44% 증가하였다.

표1)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상담 운영 현황('19~'22)

구 분	상담인원(명)	상담건수(건)	병원연계(건)	예산(백만원)
총 계	17,976	22,618	1,403	1,771
2022년	5,947	7,061	666	452
2021년	4,123	5,347	336	416
2020년	4,446	5,819	152	467
2019년	3,460	4,391	249	436

출처 : 서울소방재난본부

-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증가하는 심리상담 수요와 접근성, 편리성을 높이고 심리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심리상담실을 도입했다.
- 우울,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누구나 모바일 앱(어플)에 접속하여 24시간 실시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다.
- 이를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7,500여명의 소속 소방공무원 전문 심리상담 지연·공백 방지를 위해 서울시의회로부터 정신건강 사업예산 3억원을 증액받아 전년 대비 상담인력을 65%(6명) 증원하였다.
- 이를 통해 총 15명의 ‘찾아가는 상담실’ 전문상담사가 맞춤형 심리상담을 하도록 확대하고 앱 기반 비대면 전문상담사 140명으로 하여금 비노출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였다

-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“모바일 앱 기반 심리상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”라고 말했다.
-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길영의원은 “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 특성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, 우울증, 수면장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”며 “비대면 온라인 상담실 운영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예산투입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-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금년부터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상담, 검사,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의 병원비(상담·검사료 등)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‘마음건강 서비스지원 프로그램’도 확대·운영 중이다.
-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소방대원들이 현장경험에 따른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”며 “소방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전했다.